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장마 맞물린 휴식기, 호랑이에게는 독?

깊어지는 휴식이 KIA의 여름 야구에 변수가 되고 있다.

올 시즌 9구단 체제가 도입되면서 프로야구에는 '휴식기'라는 새로운 일정이 추가됐다. KIA는 지난 6월 21~23일에 이어 네 번째 휴식기를 보내고 있다.

여름에 맞는 여유가 반갑기는 하지만 장마에 맞물린 휴식기가 KIA에게는 고민이다.

KIA는 지난 주 우천으로 3 경기를 쉬면서 3경기 밖에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다. 지난 일요일에도 비가 오면서 극적인 역전승의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바로 휴식기에 들어갔다.

현재 KIA는 67경기를 치르는데 그치며 9개 팀 중 가장 적은 일정을 소화했다. 넥센·LG와는 5경기 차이가 난다.

오는 12일 두산과의 원정경기가 예정

되면서 KIA는 6일 만에 경기를 치르게 된다. 하지만 주말 수도권에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올 시즌을 앞두고 우려했던 여름철 길고 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휴식기 후 성적 2승 1무 5패... 순위 싸움 악재로

주말 두산 원정 비 예보에 경기감 떨어질까 우려

울스타 브레이크 겹쳐... 잦은 휴업에 4강 길 변수

문제는 또 있다. 이번 휴식기가 끝나면 5 경기를 치르고 다시 쉬어야 한다. 오는 18일부터 울스타 브레이크가 시작되기 때문에 KIA는 또 휴업에 들어간다.

비 때문에 앞선 휴식이 이후에도 8경기만 치렀고 이번에도 5경기 후 휴식이라 선수들의 경기감각 유지가 쉽지 않다.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도 고민이다. 세 차례 휴식이 이후 벌인 세 팀과의 성적은 2승1무5패.

KIA는 지난 5월 31일 두 번째 휴식이 이후 만난 LG에게 싸움이 3연패를 당하며 '휴식기 효과'가 무색한 성적을 냈다.

앞선 휴식기(6월 21~23일) 뒤 결과도 좋지 못했다. 9연승에서 맞은 휴식기. 비 때문에 5일 만의 경기에 나선 KIA는 감을 잃은 타선에 12회 연장 승부 끝에 4-4 무승부를 기록하며 진을 뒀다.

이후 삼성 원정에서 싸움이 패까지 당하며 4연패의 부진에 빠졌다.

8월 일정을 생각하면 장마철에 돌린 휴식기가 더욱 아쉽다. 8월부터는 2연전 일정이 전개 된다. 1주일에 세 팀을 만나야 하는 만

렘 이동거리에 따른 체력부담은 불가피하다.

오는 8월6일부터 20~21일 휴식기까지 부산-마산-광주-문학-광주-군산을 돌아야 하는 12연전 일정이 KIA를 기다리고 있다.

7월 휴식기를 잘 보내는 게 KIA에게는 올 시즌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8-9일 무등경기장에서 훈련을 진행했던 선수단은 10일 하루 휴식을 취했다. 11일 오후에는 잠실로 이동해 다음 일전을 준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나지완·김선빈·차일목 울스타전 뚝다

감독 추천 받아

KIA의 4번 타자 나지완이 처음으로 울스타전 무대를 밟는다.

2013 프로야구 울스타전에 출전할 감독추천 선수 명단이 10일 발표됐다.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웨스턴 리그에서는 나지완·김선빈·차일목(이상 KIA), 손승락·강윤구·허도환·박병호(이상 넥센), 김혁민·송창식(이상 한화), 찰리·이재학·나성범(이상 NC)이 감독 추천을 받았다.

이스턴 리그의 류중일 감독은 안지민·진갑용·배영섭(이상 삼성), 세든·박희수·박진만(이상 SK), 오현택·홍상삼·양의지·오재원·이종욱(이상 두산), 김성배(롯데)를 추천선수로 꼽았다. 13명의 선수에게는 첫 울스타다. 나지완,



<나지완>

<김선빈>

<차일목>

강윤구, 박병호, 송창식, 찰리, 이재학, 나성범, 안지민, 배영섭, 세든, 박희수, 오현택, 김성배는 감독추천으로 처음으로 울스타전 그라운드를 찾는다.

한편 이번 울스타전은 오는 19일 포항 야구장에서 개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전반기 피날레 장식할까

오늘 마지막 등판 시즌 8승 도전

애리조나 신예 스택스와 맞대결

미국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류현진(27)이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 시즌 8승에 도전한다.

류현진은 11일(한국시간) 오전 10시40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올 시즌 올 시즌 18번째 선발등판이고, 애리조나전 3번째 등판이다.

류현진은 올 시즌 애리조나와의 경기에 두 차례 등판해 1승을 거뒀지만 피안타율 0.357, 평균 자책 4.50으로 좋지 못했다.

<ML2년차 신예 스택스와 맞대결=류현진의 전반기 마지막 등판 상대는 메이저리그 2년차인 애리조나의 신인 좌완투수인 타일러 스택스(22)다.

스택스는 최근 4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3.65를 기록하며 최근 애리조나의 선발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제구력을 앞세운 직구와 낙차 큰 커브가 주무기인 그는 애리조나 산하 트리플A 팀인

리노 에이시스에서 뛰면서 빅리그 선발진이 구멍날 때마다 올라와 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5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는 8이닝 동안 안타 3개만을 내주고 삼진 5개를 쏴내며 등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쳐 승리투수가 됐다. 애리조나는 이 경기에서 5-0으로 승리했다. 올 시즌 22살 이하 투수 중에서 8이닝 이상을 무실점으로 막은 선수는 호세 페르난데스(마이애미)와 스택스 단 둘뿐이다.

류현진은 지금까지 17경기 중 14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투구 3자책점 이하)를 기록하며 선발투수로서 제 몫을 다 했지만 타선의 지원이 받지 못하거나 불펜진이 다 잡은 승리를 놓치는 바람에 승수를 날린 적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다저스의 방망이가 불을 뿜고 있다. 다저스는 7월 들어 치른 5경기에서 팀 타율 0.318의 맹타를 휘둘렀다. 이 기간에 평균 12.2개의 안타를 때리고 7점을 뽑아냈다. 류현진이 평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

고 팀 타선 최근의 기세를 이어간다면 승리는 낙관적이다.

또한 류현진이 타석에서 애리조나를 상대로 불을 뿜을지도 관심이다. 류현진은 애리조나와의 2경기에서 4타수 4안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좀처럼 보기 드문 류현진의 3루타도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나왔다.

<전반기 피날레 등판 중요한 까닭=이번 애리조나를 상대로 한 전반기 피날레 등판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시즌 8승에 성공한다면 후반기 승수 쌓기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날 애리조나전에서 호투한다면 10일 현재 2.5차 뒤진 애리조나와의 승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쉐비 밀러(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신인왕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밀러는 현재 9승6패, 평균 자책점 2.80을 기록, 신인왕 경쟁에서 한발 앞서 있다.

한편 다저스를 포함한 메이저리그 각 구단은 17일 울스타전을 치른 뒤 휴식기(16~19일)를 보내고 나서 20일부터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다저스는 26~29일 신시내티 레즈와 홈 4연전을 갖기 때문에 류현진과 추신수가 올 시즌 처음 맞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LA 다저스 류현진이 11일(한국시간) 오전 10시40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 선발 등판해 시즌 8승에 도전한다. 류현진이 전반기 피날레 등판에서 호투한다면 후반기 승수쌓기가 유리해지고, 선두 애리조나와의 승차를 줄일 수 있게 되며, 신인왕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연합뉴스

/스포츠 단신

광주일고-동성고 광주대표 선발전

광주일고와 동성고가 전국체전 야구 광주대표 출전권을 다툰다.

제 94회 전국 체육대회 고등부 야구 3차 예선이 11일 오후 2시 무등경기장에서 열린다. 경기는 1차 예선 우승팀인 광주일고와 지난 9일 끝난 2차 예선에서 우승을 차지한 동성고의 대결로 펼쳐진다. 이 경기의 승자는 오는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광주대표로 출전한다.

일반부에서는 동강대가 전국체전 진출을 확정지었다.

동강대는 10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일반부 예선 3차전에서 송원대를 1-0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스포츠클럽 법인설립 준비위 개칭

광주시 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가 빛고를 스포츠클럽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개칭했다.

광주시 생활체육회는 지난 9일 프라도 호텔에서 빛고를 스포츠클럽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열고 조동진 조선대학교 체육대학교수를 준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12명

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빛고를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생활체육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광주시 생활체육회가 운영을 맡게 된다.

한편 법인설립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앞으로 체계적인 클럽운영과 이에 따른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자생력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명확한 사업 분석 및 원활한 수익 창출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